

海에게서 少年에게

최남선

一
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썩...아.
짜린다, 부순다, 문허바린다,
泰山갓흔 눅흔피, 덩태갓흔 바위스들이나,
요것이무어야, 요게무어야,
나의큰힘, 아나나, 모르나나, 호통까디하면서,
짜린다, 부순다, 문허바린다,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튜르릉, 콧.

二
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썩...아.
내게는, 아모것, 두려움업서,
陸上에서, 아모런, 힘과權을 부리던者라도,
내압해와서는 썸썸못하고,
아모리큰,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디못하네.
내게는 내게는 나의압해는.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튜르릉, 콧.

三
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썩...아.
나에게, 덜하디, 아니한者가,
只今까디, 업거던, 통기하고 나해보아라.
秦始皇, 나팔류, 너의들이나,
누구누구누구나 너의亦是 내게는 굽히도다,
나허구 겨르리 잇건오나라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튜르릉, 콧.

四
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썩...아.
도고만 山모를 依支하거나,
도스쌀갓흔 덕은섬, 손스벽만한 썸을가리고,
고속에 잇서서 영악한테를,
부리면서, 나혼다 거룩하다하난者
이리돔 오나라, 나를 보아라.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튜르릉, 콧.

五

터...르썩, 터...르썩, 텅, 썩...아.
나의 썸될이는 한아잇도다,

크고길고, 넓으게 뒤덮흔바 더푸른하날,
더것은 우리와 틀넘이업서,
덕은是非 덕은쌈 온갓모든 더러운것업도다.
도짜위 世上에 도사람터럼,
더...르썩, 더...르썩, 덕, 튜르릉, 콧.

六
더...르썩, 더...르썩, 덕, 썩...아.
더世上 더사람 모다미우나,
그中에서 쪽한아 사랑하난 일이잇스니,
膽크고 純情한 少年輩들이,
才弄터럼, 貴엽게 나의품에 와서안김이로다.
오나라 少年輩 입맞터듀마.
더...르썩, 더...르썩, 덕, 튜르릉, 콧.